

사회적 실천 행위로서의 읽기 방법의 설계에 대한 시고*

신 명 선**

〈차 례〉

1. 서론
2. 사회적 실천 행위로서의 읽기
3. 사회적 실천 행위로서의 읽기 방법
4. 분석의 실제
5. 결론

1. 서론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구성주의'는 '읽기'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를 수반하고 있다. 기존의 인지 심리학적 연구가 '개인과 읽기'의 관계에 집착하게 하였다면 사회 문화적 구성주의¹⁾는 '사회와 읽기'의 관계에 주의를 기울이게 함으로써 읽기에 대한 시각을 확장하는데 기여하였다. 사회

* 이 연구는 학술진흥 재단의 2000년 선정 중점연구소 지원 사업, "매스미디어와 언어문화 교육연구"의 일환으로,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의 연구원 자격으로 수행되었음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연구원 (rescript@hanmail.net)

1) 구성주의는 크게 두 개의 분파로 나눌 수 있을 듯하다. 개인의 인지적 작용을 중시하는 인지적 구성주의(cognitive constructivism)와 사회, 문화적 작용을 중시하는 사회 문화적 구성주의(sociocultural constructivism)가 그것이다. 여기에서 주로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사회 문화적 구성주의이다.

문화적 구성주의는 의미가 개인, 텍스트, 그리고 사회와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과임을 강조함으로써, 읽기 행위를 사회 문화적 맥락 내에서 텍스트와 독자의 의미 협상 과정으로 이해하도록 이끌었다. 구성주의는 사회 문화적 맥락을 떠난 읽기 행위의 상정이 불가능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인식시켰다는 점에서 그 이론의 효용성이 입증된다.

‘읽기와 사회’와의 관계에 주목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이론은 문화 이론이다. 여기서 문화 이론이라 함은 ‘그람시, 알튀세, 푸코, 하버마스, 기든스’ 등의 작업을 일컫는 말이다. 이들은 언어 그 자체에는 무관심하였으나 언어와 권력의 관계에 집중함으로써 언어와 사회, 나아가 읽기와 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²⁾ 특히 문화 이론은 기호학과 결부되어 언어 및 언어 구성체(읽기의 대상물)를 포함한 다양한 기호들을 사회 문화적 맥락 내에서 ‘읽는’ 시각을 제공하였다.³⁾

읽기를 사회 문화적 맥락의 한 지점으로 끌어 들임에 따라, 읽기를 하나의 ‘행위’로 바라보는 관점이 등장했다. 이제 읽기는 하나의 행위로서 정태적이 아닌 동태적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자연스럽게 이와 함께 부각되고 있는 개념이 ‘사회적 실천 행위(social practice acts)⁴⁾로서의 읽기’에 대한 인식이다. 읽기를 텍스트에 정적으로 존재하는 의미를 ‘발견’하는 인지적 과정으로 인식하지 않고⁵⁾ 사회 문화적 맥락 속에서 텍스트와 독자가 상호 작용하면서 새로운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으로 인식함에 따라 읽기 행위 자체가 하나의 사회적 실천 행위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⁶⁾

2) 특히 알튀세는 ‘읽기(reading)’ 그 자체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박주식(1998)은 알튀세의 사유 체계에 드러난 읽기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박주식(1998)에 의하면 알튀세는 ‘어떠한 읽기도 투명하지 않다’고 단정하고 읽기를 ‘순진한 읽기’와 ‘정후적 읽기’로 나누고 있다.

3) 기호학은 기호의 작용 및 ‘해독’(→ 읽기) 방법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읽기 방법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열어놓고 있다.

4) 실천(practice)이라는 용어는 행위(social acts)에 비해 좀 더 행위자의 능동성과 주체성을 함의한다. ‘실천’이라는 용어는 실천의 주체와 대상 및 목적을 문제 삼게 만들기 때문이다. ‘사회적 실천’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나 이데올로기 등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비판할 수 있는 ‘의사 소통 주체’의 문제를 수면 위로 부상시킬 수 있다.

5) 인지적 과정의 중요성 또한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 진술은 단지 읽기 행위에서 사회 문화적 맥락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사회적 실천 행위로서의 읽기'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읽기'가 사회적 실천 행위임에는 어느 정도 합의하였으나,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답보 상태인 듯하다. 이 논문은 그 구체적인 양상에 대한 고찰을 목표로 한다. 특히 사회적 실천 행위로서의 읽기가 갖는 성격을 고려할 때, 적절한 읽기 방법이 무엇인가를 탐색하는데 초점을 둔다. 그러나 미리 밝히지만, 이 논문은 그것을 종합적으로 고찰하려는 시도와는 거리가 멀다. 이 논문은 그러한 목적에 도달하려는 하나의 시도일 뿐이다.

2. 사회적 실천 행위로서의 읽기

1980~1990년에 들어서면서 한국의 언어학계에 일어난 새로운 변화 중의 하나는 텍스트언어학과 화용론 등에 대한 논의에서 찾을 수 있다. 기존의 언어학이 문장 이하의 언어 단위를 대상으로 하여 언어의 사용법(usage)에 대한 형식적 고찰에 치중하였다면, 텍스트언어학 및 화용론은 문장 이상의 언어 단위 즉 텍스트(text) 및 담화(discourse)⁷⁾를 대상으로 하여 언어의 실제적인 사용(use)에 대한 기능주의적 고찰에 초점을 두었다.⁸⁾ 이와 같은 변화에 따라 하나의 텍스트 및 담화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분석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그것이 갖는 기능을 고찰하려는 노력도 이루어졌다. 언어의 실제적인 쓰임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언어가 기능하고 있는 사회 문화적 맥락에 대한 관심을 동반하였다. 이 과정에서 언어와 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정치한 분석이 요구되었다.

새로운 언어 이론이 사회 문화적 맥락을 언어 구성체에 끌어들이는 데에는 성공하였지만, 여전히 언어 이론은 언어 그 자체에만 초점을 두려는 경

6) 우한용(1997), 최인자(2001) 등은 이러한 관점에 입각해 있다고 판단된다.

7) discourse에 대한 번역이 국내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 영어로는 모두 discourse이나 국내에서는 그것이 사용되는 학문 영역의 성격에 따라 담화 혹은 담론으로 번역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그와 같은 기존의 관행에 따르도록 한다.

8) 국내에 소개된 대표적인 연구로는 역시 '브링커(Brinker) 지음, 이성만 옮김(1994)', 보그란데와 드레슬러(Beaugrande, R. & Dressler, W) 지음, 김태욱·이현호 옮김(1995), '반 다이크 지음, 정시호 옮김(1995)' 등을 들 수 있다.

향이 강하다. 텍스트언어학이나 화용론은 사회 문화적 맥락에 관심을 기울이지만 그것은 텍스트나 담화 그 자체에 한정되어 논의되는 경향이 강하다. 때문에 텍스트와 담화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 문화적 맥락에 대한 정치한 분석은 소홀하다.

이에 비해 앞서 잠시 언급한 문화 이론은 언어와 사회의 관계를 다루면서 언어 그 자체에는 무관심한 채 사회 문화적 맥락을 분석하는 데에만 초점을 두는 경향이 강하다. 예컨대 푸코는 지식을 구성하는 규칙으로서의 담론(discourse) 형태나 지식과 권력의 관계 등에 관심을 가지면서 '담론(discourse)의 가능성 조건'을 연구하였지만, 텍스트 그 자체의 담론을 분석하지는 않았다.⁹⁾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에 대해 Fairclough(1992:1~5)는 언어학자들은 여전히 형식주의 및 인지적 패러다임을 존중하고 있고 사회 과학자들은 아직도 언어 그 자체를 정치하게 고려하지 않아도 언어 구성체를 읽을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강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읽기를 사회적 실천 행위로 인식하고 그 구체적인 양상을 이해하려면 언어 이론과 문화 이론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¹⁰⁾ 텍스트언어학이나 담화 분석은 특히 언어 구성체에 대한 정치한 분석에, 문화 이론은 특히 언어 구성체의 사회 문화적 의미, 기능 등을 설명하기에 유용하다. 예컨대, 그람시(Gramsci)의 헤게모니¹¹⁾, 이데올로기, 빼췌의 역동일시¹²⁾ 등은 읽기가

9) 푸코의 작업은 크게 고고학적 작업, 계보학적 작업, 윤리학적 작업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고고학적 단계에서는 지식을 구성하는 규칙으로서의 담론 형태에, 계보학적 단계에서는 지식과 권력의 관계에 그리고 그의 말년에는 어떻게 개인이 자기 행위의 도덕적 주체로 구성되는가라는 윤리학적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그의 고고학적 작업과 계보학적 작업이다. 푸코는 권력을 '사회라는 유기체를 관류하는 생산적인 조직망으로서 지식을 형성하고 합리성의 틀을 갖춘 언술행위를 수행하는 것'(박명진 편저, 1989:45)으로 보고 있다. 이 개념에 따르면 언어는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하나의 이데올로기로서 사회를 유지하거나 변화시키는 권력을 행사하는 중심 위치에 있다.

10) 이 관점은 Fairclough(1992:1~61)의 논의에 상당 부분 기대고 있음을 밝힌다.

11) 헤게모니란 한 사회의 경제적,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영역에 걸친 지배와 같은 리더십을 말하는 것으로, 단지 부분적이고 일시적으로만 달성이 되는 '불안정한 균형상태(unstable equilibrium)' (Fairclough, 1992:91~96)를 유지한다. 3장에서 재론됨.

12) 빼췌의 역동일시(disidentification)란 한 단계의 주체 형태가 다른 단계의 주체 형태로 전환되는 방안을 강구하는, 주체가 생산되는 방식을 변환시키려는 전략을 일컫는 말

갖는 사회적 실천 행위의 의미를 설명하는데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양상과 통합 방식에 대해서는 추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 하리라 본다. 다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의 통합 방식이 단순 결합 방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예컨대 읽기를 ① 텍스트 그 자체에 대한 언어학적인 분석 작업(1차적인 분석)과 ② 텍스트 전체가 갖는 사회문화적 의미 분석(2차적인 분석)의 합으로 인식하는 방식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통합이라고 볼 수 없다¹³⁾. 필자는 사회적 실천 행위로서의 읽기 방법에 대한 3장의 논의에서 그 통합 방식에 대한 한 가지 설계 방식을 보여줄 것이다.

문화 이론이 텍스트 읽기에 수용되었을 때, 읽기의 개념은 다음과 같은 이해를 포함한다. 어떤 텍스트에 사용된 특징한 어구를 읽는 행위는 그 어구가 그 텍스트 내에서 갖는 의미와 기능에 대한 고찰을 넘어 그 어구 사용을 가능하게 한 사회 문화적 규칙 체계에 대한 이해와 그 어휘가 생산하고 있는 또 하나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이해를 동반한다. 또한 그 어구가 추후 타텍스트와 갈등을 겪으면서 수용되거나 변용 및 억압받는 헤게모니 투쟁의 개념을 포함한다. 예컨대 노사 분류를 소재로 한 어떤 글에서 '밥그릇 싸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하면 이 단어는 글쓴이가 노사 분류라는 사회 현상을 이도 저도 아닌 '밥그릇 싸움'으로 재구조화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 어구는 사회 현상에 대한 판단과 시각을 보여주며 그것은 우리 사회의 성격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다(즉 이 단어에는 '사회적 실체'가 담겨져 있다.). 그런데 '밥그릇 싸움'이라는 어구는 추후 타텍스트에서 수용되거나 비판 및 억압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타텍스트에서는 '밥그릇 싸움'을 '노동자의 능동적 움직임'이라는 단어로 수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밥그릇 싸움'과 '노동자의 능동적 움직임'은 서로 헤게모니 투쟁을 일으키는데 그들의 투쟁 과정은 수용이나 융합, 혹은 거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된다.

언어 이론을 텍스트 읽기에 수용할 때, 텍스트 언어학이나 화용론 못지

이다(강내희, 1999:134). 3장에서 재론됨.

13) 이런 점에서 김혜정(2002)에서 논의된 비판적 읽기 방법에 대한 논의는 그 교육적 효용성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않게 중요하게 부각되는 또 하나의 이론은 '화행론(speech act theory)'이다. 하나의 발화(utterance)가 하나의 행위(acts)라는 화행론의 전제는 발화를 사회적 행위(social acts)로 바라보게 하며 하나의 발화가 사회적 상황마저도 바꿀 수 있다고 지적함으로써 발화의 힘(force)에 주목하게 만들기 때문이다.¹⁴⁾ 화행론의 기본 전제에서 의사 소통을 바라보면 우리는 말하고 듣고 읽고 쓰는 행위가 단순히 나의 의사를 전달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듣는 행위 이상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이 이론에 터해서 글을 읽고 쓰는 행위가 의견의 교환 과정을 넘어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재구성하려는 구체적인 사회적 실천 행위임도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요컨대 말하고 듣고 읽고 쓰는 행위는 사회를 재구성하고 변화시키려는 사회적 실천 행위(social practice acts)일 수 있다.

예컨대 '인간 복제'에 관한 글을 읽는 행위는 단순히 인간 복제에 관한 연구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알고자 하는 의미 이상을 함의할 수 있다. '인간 복제'에 관한 글을 읽는 행위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주체의 적극적인 관심에 기반한 사회 참여 행위이며 그러한 문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비판적 사고를 노정하는 실천 행위(practice acts)이다. 만일 그에 관한 글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담아 인간 복제에 관한 글을 쓴다면 이 행위 역시 단순히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넘어서 사회적 실천 행위(practice acts)일 수 있다. 이 때 글쓰기와 읽기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사회적 이슈의 변화 과정을 예측하고 선도하는 핵심적 위치에 설 수 있으며 때문에 그 어떤 사회적 행위 못지 않은 힘(power)을 갖게 된다.

텍스트의 주제 파악뿐만 아니라 하나의 텍스트가 보여주는 사회 문화적 현상에 대한 판단과 그것이 전·후 텍스트와 갖는 관계에 대한 이해는 텍스트와 독자의 상호 작용을 통해 가능하다. 독자는 사회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면서 텍스트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실천 행위에 동참하게 된다.

14) 예컨대 '지금부터 이 배의 이름을 거북선이라고 명명한다'라고 발화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그 배의 이름은 '거북선'이 되는데, 이것은 이 발화를 통해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세계가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라고 발화하게 되는 순간, 전혀 남남이던 두 사람은 부부가 됨으로써 기존에 존재하던 삶이 바뀌게 된다. 화행론은 발화가 갖고 있는 이와 같은 기능과 힘에 주목하고 있는 이론으로서, 화용론의 기초가 되는 이론이기도 하다.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 가능하다. 첫째는 텍스트와 상호 작용을 하고 있다는 행위 그 자체를 통해, 두 번째는 텍스트와의 상호 작용을 통한 이해 과정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전자는 '상호 작용은 곧 사회적'이라는 본질적 개념에서 나온 것이며 후자는 이해 과정을 통한 의미 협상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예컨대 '글쓰기는 현상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왜 노사 분류가 밥그릇 싸움인가?, 우리 사회는 왜 늘 현상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판단하려 하는가?, 왜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보수주의적 사고 방식이 팽배해 있는가? 다른 텍스트들은 같은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와 같은 질문은 텍스트를 읽어 나가는 독자가 사회적 실천 행위를 하고 있는 방증이 된다. 즉 읽기 과정을 통한 사회적 실천 행위는 '무엇인가?', 어떻게 된 것인가?, 왜 그런가?'와 같은 물음 속에서 구체화된다.

'읽기'는 텍스트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주제)를 찾는 것뿐만 아니라 ①주제 및 텍스트에 반영되어 있는 사회 문화적 현상에 대한 판단과 ②사회 문화적 규칙 등을 읽는 행위를 포함한다. ①이 텍스트가 직접적으로 표나게 드러내고자 하는 구체적인 상황 맥락에 좀 더 치우쳐 있다면 ②는 텍스트 생산자의 의도와는 다소 관계 없이 그 텍스트를 둘러싼 우리 사회 전반의 사회 문화적 맥락에 좀 더 치우쳐 있다. 예컨대 노사 분류에 관한 텍스트라면 노사 분류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회 문화적 맥락이 ①에 해당한다. ②는 텍스트 이면에 노정되어 있는 사회 문화적 맥락으로서 우리 사회가 구성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자연스러운 문화적 현상 및 규칙 예컨대 사회 제도나 관습 등을 의미한다. ①이 ②에 비해 좀 더 미시적이다. 똑같이 사회 문화적 맥락을 가리키지만 그 성격을 고려하여 ①을 상황적 맥락으로 ②를 문화적 맥락으로 명명할 수도 있다.

독자가 텍스트의 의미를 단순히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협상의 과정을 통해 의미를 구성해 낸다는 점에서 '생산적 독자(productive reader, 혹은 생비자)'¹⁵⁾라는 개념이 새롭게 부상된다. 사회적 실천 행위의 주체로

15) 최근 '생비자'라는 용어가 새롭게 부상되고 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제작에 시청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프로그램의 제작 방식이나 방향을 바꾸기도 하는 현상에 대한 분석에서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이 용어는 국어교육학계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리라 본다. 텍스트의 생산과 소비 행위를 동시에 수행하는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독자를 '생비자'로 일컬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서의 독자는 생산적 독자로서, 사회 문화적 맥락 속에서 무엇인가를 새롭게 생성해 낼 수 있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실천하는 주체로서 자리매김될 수 있다.

읽기를 사회적 실천 행위로 간주할 때, '문식성(literacy)'¹⁶⁾의 지평은 더 넓어진다. 첫째, 문식성은 사회 문화적 맥락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 그 동안 우리는 문식성을 단순히 '읽고 쓸 수 있는 능력' 정도로 정의하는데서 더 나아가지 못했다. 이러한 탈맥락적인 정의는 문식성이 모든 맥락에서 같은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고 학습될 수 있는(즉 탈맥락적인) '자동화된 기술(autonomous skill)'¹⁷⁾인 것처럼 오해될 소지를 남긴다. 그러나 사회 문화적 맥락 내에서만 의사 소통이 제대로 설명될 수 있는 것처럼 문식성도 그 언어가 사용되는 '사회 문화적 맥락' 내에서만 제대로 이해될 수 있다.¹⁷⁾

둘째, 문식성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사회 문화적 맥락에 따라 변화하는 동적 개념이 된다. 이것은 문식성이 사회 문화적 흐름에 기대고 있기 때문에 파생하는 당연한 결과이다. 예컨대 과거에는 한문을 읽고 쓸 줄 아는 것이 문식성이라는 이름에 값할 수 있었지만 멀티 미디어가 발달한 현재의 사회 문화적 흐름 속에서는 단순히 글자를 알고 쓸 줄 아는 것을 넘어서서 각 매체들의 특징과 그 속에서 기능하는 메시지의 특징을 읽을 줄 아는 것을 포함한다.

셋째, 문식성은 사회적 실천 행위를 이끄는 힘이 된다. 읽기와 쓰기가 사회적 실천 행위이므로 문식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러한 사회적 실천 행위의 의미를 읽을 수 있으며 그러한 능력은 또 다른 사회적 실천 행위를 유발하는 힘(force)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문제들에 숨겨진 이데올로기 등을 발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비판할 줄 아는 사람은 능동적인 사회적 실천의 주체로서 거듭날 가능성이 높으며 그것은 곧 그 주체가 갖는 실천적 힘이 된다.

16) 문변력이나 문해력 등으로 번역하기도 한다. '문식성'이라는 용어에 비해 전자는 '비판적인 사고 개념'을, 후자는 '해독의 개념'을 좀 더 부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들에 비해 '문식성'은 상대적으로 중립적이다. 본고에서는 '문식성'으로 번역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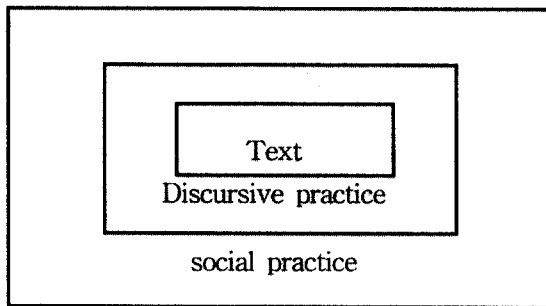
17) 노명완·이차승(1996)에서도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으로 문식성을 새롭게 조명하여 문식성의 사회 문화적 측면을 심도있게 지적하고 있다.

지금까지 사회적 실천으로서의 읽기 행위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다. 다음 장에서는 그러한 읽기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3. 사회적 실천 행위로서의 읽기 방법

사회적 실천 행위로서의 읽기에 대한 2장의 논의를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읽기 방법이 적어도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첫째는 언어 이론과 문화 이론을 통합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는 읽기의 역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기서는 Fairclough(1992)의 논의를 기반으로 하여 그 구체적인 설계 방식을 구상해보도록 한다. Fairclough(1992)의 논의는 텍스트의 읽기에 대한 논의라기보다 텍스트 분석 방법에 대한 논의이다. 그러나 텍스트를 분석하려는 목적이 텍스트의 이해에 놓여 있는 만큼, 그 방법론은 읽기의 방법론에 대한 논의의 검토 대상이 될만하다.



(Fairclough, 1992:73)

Fairclough(1992)는 담론 분석을 위해 텍스트, 담론적 실천(discourse practice), 사회적 실천(social practice)의 세 가지 차원을 다룰 것을 제안한다. 텍스트에 대한 분석은 텍스트의 언어적 차원 즉 어휘, 문법, 응집성(cohesion), 텍스트 구조 등에 대한 분석을 의미하는 것이며 담론적 실천에 대한 분석은 텍스트의 생산(production), 유통(distribution), 소비(consumption)에 대한 분석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발화의 힘

(the force of utterance), 결속 구조(coherence),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에 대한 분석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실천에 대한 분석은 담론 사건(discursive event)이 사회 제도나 환경 등과 어떻게 교류하여 담론적 실천의 속성을 형성하고 담론적 구성 효과(constructive effect)를 갖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위의 그림에서 보듯이 텍스트, 담론적 실천, 사회적 실천의 세 차원은 결코 단계화되어 있지 않다. 텍스트를 분석한 후 담론적 실천 차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사회적 실천 차원을 분석하는 방식은 지양한다. 사회적 실천 차원이 담론적 실천 차원을, 담론적 실천 차원이 다시 텍스트 차원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이들의 관계가 결코 단계적이지 않음을 의미한다. 예컨대 텍스트에 대한 분석은 담론적 실천 및 사회적 실천 차원에 대한 분석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 이들은 서로가 엄격하게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각 차원을 분리하여 텍스트를 읽으려는 시도는 무의미하다.¹⁸⁾

텍스트, 담론적 실천, 사회적 실천의 세 차원을 일직선으로 나열할 때, 텍스트 차원으로 갈수록 언어 이론의 영향이 크고 사회적 실천 차원으로 갈수록 문화 이론의 영향이 크다. 그러나 이들을 엄격하게 분리하려는 시도가 무의미한 것처럼 차원에 따라 각 이론의 적용 범위를 분리하려는 시도 또한 무의미하다.

텍스트 차원의 검토 대상은 어휘, 문법, 응집성(cohesion), 텍스트 구조 등이다. 우리가 읽기 방법을 위해 언어 이론을 검토할 때 주의할 것은 그것이 텍스트의 이해 과정에 미치는 영향 및 작용이다.¹⁹⁾ 어휘, 문법, 응집

18) '사실적 읽기, 추론적 읽기, 비판적 읽기'라는 틀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비롯하여 7차 국어과 교육 과정에도 반영되어 있다. 이 틀에 대해서 갖게 되는 편견 중의 하나는 각 읽기 방식이 단계적이며 위계적이라는 생각이다. 예컨대 비판적 읽기란 반드시 사실적 읽기나 추론적 읽기보다 위계상 상위이며 비판적 읽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실적 읽기와 추론적 읽기를 거쳐야 한다는 생각이 그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이 세 가지 틀이 결코 단계성과 위계성으로 설명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19) 이러한 측면에서 국어교육적 관점에서 문법을 연구하는 작업은 일반 국어학 연구와는 차별화된다. 국어교육적 관점에서 눈여겨 볼 만한 언어 이론으로 체계 기능 문법이나 비판적 언어학 등이 있다고 생각한다. 체계 기능 언어학(systemic-functional linguistics)은 Halliday(1985)와 Beaugrande(1997:4장) 등을 참고할 수 있다. 비판적 언어학은

성, 텍스트 구조 등에 대한 언어학의 연구 성과에 근거해 문법에 맞지 않
다거나 맞춤법이 틀렸거나 서론이 빈약하다든가 등의 논의보다는 'A 어
휘의 사용이 사태를 바라보는 필자의 부정적 시각을 보여 준다' 등과 같은
논의가 더욱 필요하다. 그리고 앞에서 강조한 것처럼 각각이 담론적 실천
이나 사회적 실천과 맺는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어휘화(lexicalization),
재어휘화(relexicalization), 범주화(classification), 명사화(nominalization),
양태(modality), 수동화(passivization) 등을 예로 들어 본다.

예)

- ㄱ) 요사이 우리 사회는 '밥그릇 싸움'으로 어수선하다.
- ㄴ) 개인이나 집단은 이익만을 추구하되 공멸을 막기 위해 타협하여 정부를 만들고
정부는 이익 투쟁을 공정하게 조정하면 된다고 하는 생각, 이러한 속류 자유주의
사상은.....

위의 예들은 '밥그릇 싸움과 정치'라는 제목으로 2001년 7월 11일자 중
앙일보에 실린 시론에서 뽑은 것들이다. 이 글은 의료계 파업과 금융 노조
파업, 그리고 롯데호텔 노조 파업 등의 일련의 사건을 집단이기주의와 관
련하여 논의한 글이다. ㄱ)의 '밥그릇 싸움'은 '어휘화'의 예이다. 이러한 어
휘화는 주어진 일련의 사건들을 특정의 개념으로 치환함으로써 사태를 바
라보는 독자의 시각을 고정시키는 효과를 낸다. 우리는 '밥그릇 싸움'이라는
어휘를 통해 글쓴이가 '의료계 파업과 금융 노조 파업, 그리고 롯데호텔 노
조 파업'과 같은 일련의 사건을 정당한 권리 주장이나 노동자의 권익 보호
등과는 차별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⁰⁾ ㄴ)은 재어휘화의 예이다. '개
인이나 - 생각'에 해당하는 부분을 '속류 자유주의 사상'으로 재어휘화함으

언어학의 연구 성과와 사회학의 연구 성과를 통합시키려는 일련의 연구들을 일컫는 것
으로 **삐쎈**을 비롯한 파울러(R. Fowler), 허지(Hodge), 크레스(Kress), 트류(Trew)
등을 그 대표자로 볼 수 있다. 이 중 가장 주목을 끄는 연구가는 **삐쎈**이다. **삐쎈**은 언
어의 이데올로기적 구성 과정을 언어학적 연구 성과를 이용하여 설명함으로써 언어의
이데올로기적 기능의 분석 틀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김상욱(1995:35~36)은 이
데올로기 분석 방법으로 **삐쎈**이 제시한 '대체, 동어 반복, 환언'을 '지속, 확장, 전이,
대체'로 수정하여 소설 담론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분석한 바 있다.

20) '5.16 혁명'과 '5.16 쿠데타', '동학 농민 운동'과 '동학란' 등도 비슷한 예이다.

로써 ㄱ)과 유사한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어휘화나 재어휘화는 곧 범주화의 예가 된다. 이것들은 해당 사태를 무엇인가로 명명함으로써 해당 사태를 특정 부류에 편입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위의 예의 경우 일련의 사태를 '싸움'의 범주에 편입시키는 순간, 해당 사태들은 '싸움'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우리 사회의 도식(schema)이나 관습(convention)과 연결되면서 해당 사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하는 효과를 낸다.

명사화는 일련의 행동 및 사태를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그대로 드러나도록 기술하지 않고 하나의 명사로 표현하는 것을 일컫는다. 텍스트에는 수 많은 명사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표현은 해당 사건에 대한 동작성(activity)을 약화시키고 관련된 사람 등을 숨기는 효과를 낸다. 예컨대 일련의 사태를 '파업 발생'으로 명사화시키게 되면 파업을 일으킨 주체와 서술어가 사라짐으로써 해당 사태의 이면들이 은폐되며 해당 사태를 바라보는 필자의 입장 또한 모호해 진다.

양태는 해당 사건을 바라보는 글쓴이의 태도를 드러내주는 것이다. 어휘화나 재어휘화, 범주화, 명사화에 비해 글쓴이의 태도가 상대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특징이 있다. 양태는 어말어미에서 가장 잘 드러나는데 '해주시겠습니까'(아주 높임)나 '해'(아주 낮춤) 등의 예에서처럼 상대에 대한 필자의 공손성의 정도와 태도를 드러낼 수 있다. 때문에 양태가 어떻게 처리되어 있는가에 대한 고찰은 텍스트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상에 대한 글쓴이의 태도를 읽을 수 있게 한다.

수동화는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을 일정한 방향으로 교묘하게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가장 쉬운 예가 '신창원, 드디어 체포'와 '경찰, 드디어 신창원 체포'의 비교에서 드러난다. 둘 다 완전한 문장으로 기술되지 않았지만 전자(신창원이 드디어 체포되다)가 신창원을 중심으로 사태를 바라보도록 독자를 이끈다면, 후자(경찰이 드디어 신창원을 체포하다)는 경찰의 입장에서 사태를 바라보도록 이끈다. 때로 수동화는 명사화처럼 관련되는 사람들을 숨김으로써 사태를 은폐하는 효과를 낼 수도 있다. '신창원, 드디어 체포'의 경우 신창원을 체포한 주체가 감추어져 있는데, 예상과 달리 그 주체는 경찰이 아닌 그 어떤 누군가일 수도 있다.

담론적 실천에 대한 분석은 텍스트의 생산(production), 유통(distribution), 소비(consumption)에 대한 분석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발화의 힘(the force of utterance), 결속 구조(coherence),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에 대한 분석을 포함한다. 텍스트의 생산, 유통, 소비 과정은 텍스트 이해 및 텍스트의 영향력(→ 힘) 등에 영향을 미친다. 대학의 저명한 교수인가 섬 마을의 평범한 늙은 노인인가, 정보 통신 기술의 힘을 빌려 단시간 내에 전국적으로 유포될 수 있는 텍스트인가 그렇지 않은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텍스트인가 소수의 전문가들을 위한 텍스트인가 등은 한 편의 텍스트를 이해하는 주요 변수로서 등장한다. 독자가 누구냐에 따라 한 편의 글은 발화의 힘을 갖기도 하고 혹은 이해할 수 없는 글(결속 구조가 떨어지는 글)로 치부될 수도 있다.

텍스트의 의미는 또한 타텍스트와 갖는 관계의 양상에 따라 변화할 수도 있다. 이것은 상호텍스트성의 문제와 관련이 깊다. 상호텍스트성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텍스트에 드러난다. 하나는 '인용부호'로 표시되는 것처럼 명백하게 드러나는 이질적인 요소(heterogeneity)들이며 또 하나는 명백한 단서 없이 다른 텍스트와 관계를 맺는 방식이다. Fairclough(1992:104)는 전자를 manifest intertextuality, 후자를 interdiscursivity로 부르고 있다. 한 편의 텍스트가 타텍스트와 맺는 관계에 따라 텍스트의 의미는 유동적이게 된다.

사회적 실천에 대한 분석은 담론 사건(discursive event)이 사회 제도나 환경 등과 어떻게 교류하여 담론적 실천의 속성을 형성하고 담론적 구성 효과(constructive effect)를 갖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고려해야 할 주요 개념으로는 그람시(Gramsci)의 헤게모니, 이데올로기, 역동일시 등이 있다.

헤게모니란 한 사회의 경제적,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영역에 걸친 지배와 같은 리더십을 말한다. 이는 단지 부분적이고 일시적으로만 달성이 되는 '불안정한 균형상태(unstable equilibrium)' (Fairclough, 1992:91~96)이다.²¹⁾ 예컨대 그람시의 헤게모니 관점에서 노사 협상을 바라본다

21) 말하자면 헤게모니란 특정한 역사적 시기에 지배 계급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피지배 계급을 문화적 수단을 통해(직접적으로 강압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는 지

면 그것은 헤게모니를 얻기 위한 권력 투쟁의 장이 될 수 있는데 노사협상을 통해 노조가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그 승리는 권력을 쟁취한 뒤의 안정된 상태가 아니라 다음에 올 권력 투쟁을 (필연적으로) 기다리는 불안정한 균형 상태이다.

이 개념이 갖고 있는 유용성은 이데올로기는 하나의 권력이라고 볼 수 있으며²²⁾ 하나의 담론은 필연적으로 하나 이상의 이데올로기를 (재)구조화하고 있다는 점을 간파할 때 온다. 이데올로기들은 서로간에 접합(articulation), 탈접합(disarticulation), 재접합(rearticulation)하는 과정을 통해 헤게모니적 투쟁을 일으킨다. 때문에 하나의 담론은 담론적 실천 즉 생산, 유통, 분배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사회 구조나 권력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받게 된다. 이러한 헤게모니적 투쟁 속에서 담론적 구조와 사건은 변증법적 관점에서 조화를 이루게 된다.

예를 들어 하나의 텍스트가 타텍스트의 내용을 인용하거나 빌어오는 현상 즉 상호텍스트성의 개념도 헤게모니 이론과의 결합을 통해 고찰하게 되면, 그것은 이데올로기적 투쟁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상호텍스트성의 개념을 헤게모니 개념과 결합하여 고찰하게 되면 하나의 텍스트가 타텍스트의 내용을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이유와 그 정도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하다.

헤게모니 개념이 가져다주는 장점은 무엇보다도 이 이론이 텍스트의 유통성을 담보할 수 있게 해 준다는 데 있다. 각 담론들은 이데올로기 투쟁의 장에서 역동적으로 기능하는 과정을 통해 접합, 탈접합, 재접합 되면서 (재)구조화되는 불안정한 균형 상태 속에 존재한다. 따라서 각 담론들은 고정된 실체가 될 수 없다.

도력을 말한다. 중요한 것은 헤게모니가 의식(consciousness)과 표상(representation)의 수준에서 작용한다는 점이다. 헤게모니는 계급 이데올로기를 자연화(naturalized)하여 이를 상식의 형태로 만들어 권력(power)이 강요가 아니라 권위로서 행사될 수 있게 만든다.

- 22) 올리비에 르불(1994)은 이데올로기를 '당파적 사고, 집단적 사고, 은폐적 사고, 합리적 사고, 권력에 봉사하는 사고'의 다섯 가지 측면에서 고찰하고 있다. 그러나 역시 이데올로기의 성격으로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그것이 권력에 봉사하는 사고라는 점이다. 물론 여기에서 권력이라는 것이 정치적이거나 물리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권력은 '인간에 대한 인간의 지속적인 지배 전부'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데올로기나 헤게모니 개념은 위의 그림의 사회적 실천(social practice) 부분을 설명하는 핵심 개념이기도 하다. 하나의 담론이 사회 제도나 구조와 어떻게 교류하여 사회적 실천을 이루며 담론적 구성 효과를 갖는지는 이데올로기나 헤게모니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다. 이것들은 담론 안에 숨겨진 전제와 함축(connotation)을 분석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 예컨대 '우리 사회는 밥그릇 싸움으로 어수선하다'는 말 속에는 우리 사회에 밥그릇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전제와 그러한 현상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함축이 담겨 있다. 그리고 그러한 전제와 함축은 텍스트의 이데올로기를 분석하는 준거로서 작용할 수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실천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차원을 인식하지 못한다. 우리 사회에서 많은 이데올로기들은 다소 자연스럽고 당연시되며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이데올로기적 변화에 저항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조차도 그가 모든 이데올로기적 세부 사항을 면밀히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데올로기는 사람들의 의식 자체를 구성하며 그 안에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신념, 의미, 실천의 체계로서 사람들을 호명(interpellation)²³⁾한다. 사람들은 이데올로기 속에서 비주체적으로, 주어진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상상적 자율성을 부여받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사실 다양하고 모순된 방식으로 주체를 구성하기도 한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된다. Fairclough(1992:90~91)가 지적한 것처럼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 속에서 모순적인 호명에 접하게 되며 이 때문에 혼란을 겪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혼란과 불확실성 속에서 행위 주체로서 행동할 수 있게 된다. 즉 주체는 이데올로기적으로 구성되기는 하지만 다양한 관습과 이데올로기들 사이에서 자신의 주체성을 찾기 위해 독창적으로 행동하거나 관습과 구조를 재구조화할 수도 있는 것이다.

여기서 독자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비판적인 읽기의 가능성이 열린다. 그것은 독자의 사회적 실천 행위의 적극성과 능동성 및 비판성을 함의

23) 이데올로기가 주체를 구성하는 방식을 설명하기 위하여 알튀세(Althusser)가 쓴 용어. 개인들이 그들이 속한 문화가 제공하는 표상(representation)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게 만드는 이데올로기의 메커니즘을 말한다. 문장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호명된 개인은 스스로를 발화의 주어와 동일시하고 문장 구조가 규정해주는 주체의 자리에 스스로를 위치시키게 된다(박명진 편, 1994:351).

한다. 이데올로기들의 투쟁의 장에서, 헤게모니 투쟁의 장에서 우리는 우리 사회에 상식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 미처 의식하지 못했던 우리 사회의 이데올로기를 읽어 내고 다른 이데올로기들의 관련 속에서 그 이데올로기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비판적 읽기를 위해서는 **페쇄의 역동일시(disidentification)** 개념에 주목할 필요도 있다. 역동일시란 한 단계의 주체 형태가 다른 단계의 주체 형태로 전환되는 방안을 강구하는, 주체가 생산되는 방식을 변환시키려는 전략을 말한다(강내희, 1999:134). 이 개념은 동일시, 반동일시 개념과 관련지어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 쉽다. 자신을 어떤 담론구성체²⁴⁾와 동일시 여겨 그것을 '좋은 주체'로 여기는 것이 동일시 전략이라면 그것에 거리를 두고 이를 '나쁜 주체'로 여기는 것이 반동일시라고 볼 수 있다. 역동일시가 동일시나 반동일시와 다른 점은 단순히 거부하거나 옹호 혹은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둘을 통합하려는 태도를 취하기 때문이다. 거칠게 표현한다면 하나의 담론을 읽고 그 담론에 내재한 이데올로기를 무조건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합하여 비판적으로 이해하려는 자세가 역동일시 관점의 출발이다.

사회적 실천 차원에서 다른 헤게모니, 이데올로기, 역동일시에 대한 논의는 반드시 텍스트 및 담론적 차원의 분석을 바탕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이것은 텍스트 차원에서 다른 어휘, 문법 등이 반드시 담론적 실천과 사회적 실천 차원의 논의 속에서 함께 논의되어야 함과 마찬가지로, 그래야만 텍스트에 함몰된 협소한 읽기나 사회적 실천에만 함몰된 피상적 읽기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24) 담론구성체는 푸코(Foucault, 1969)의 <지식의 고고학>(The Archeology of Knowledge)의 탐구 대상이며 지식의 체계를 연구하는 그의 독특한 방법론을 제시하는 개념이다. 즉 담론 구성체란 일종의 지식의 존재 양식을 말하는데, 이것은 기존에 지식의 존재 형태로 간주되어 왔던 이데올로기, 이론, 과학, 기타 객관적 지식 등 지식의 단위들을 전적으로 부정하고 드러나 있는 언술의 수준에서가 아니라 언술들을 조직하는 규칙의 차원에서 지식을 설명하고자 하는 개념이다(박명진 편, 1994: 81).

페쇄는 담론구성체를 '우리가 어떤 것을 말할 수 있고 어떤 것은 말할 수 없게 만드는 체계'(강내희, 1999:127)의 의미로 사용하였다.

4. 분석의 실례

3장에서는 사회적 실천으로서의 읽기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지면 관계상 이를 상세히 기술하지는 못했다. 이 장에서는 3장에서 제시한 읽기 방법을 구체적인 실례를 바탕으로 간단히 확인해 보도록 한다.

밥그릇 싸움과 정치

(김○○, ○○대 교수, 정치학)

① 요사이 우리 사회는 이른바 '밥그릇 싸움'으로 어수선하다. 물론 이해 당사자들은 이것이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런 명분이 자기 밥그릇 크기와 관련되지 않는다면 이들이 그렇게 감옥에 갈 각오로 투쟁할 리는 만무하다. 심지어 공익 실현을 목표로 하는 시민단체 인사들조차 자신의 명예나 지위와 전혀 상관없다면 감옥에 갈 각오로 그렇게 투쟁하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

명분은 공익실현이지만

② 이 말을 너무 냉소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바란다. 어차피 인간 사회는 그런 것이다. 사람은 이기적 동물이고 이기적 동물은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피나는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나는 이익집단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투쟁하면 그만이고 개인 역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개인이나 집단은 이익만을 추구하되 공멸을 막기 위해 타협하여 정부를 만들고 정부는 이익 투쟁을 공정하게 조정하면 된다고 하는 생각, 이러한 속류 자유주의 사상은 인간 세계의 피해를 불러오는 매우 조악한 사상이다. 쉽게 말해 인간이 이기적이라고 믿는 사람은 꼭 그렇게 이기적으로 행동하기 쉽다. 남의 이기적인 행동 때문에 피해보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본성이 착하다고 믿는 사람은 자신이 착하게 행동하게 된다. 남도 착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③ 인간의 본성을 착하다고 믿는 사상에 바탕을 두면 사회를 통제하고 이익 갈등을 조정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고 시행하기 어렵다고 한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을 악하다고 믿는 사상은 스스로의 예언에 의해 인간 사회를 악하고 피해하게 만든다. 문제는 이 둘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에 있다.

④ 하나는 교육이다. 사람의 본성 중 이기적인 부분을 인정하고 이익 투쟁을 얼마나 공정하고 합법적이고 윤리적으로 해야 할 것인가를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가르치는 것이다. 또 사람의 착한 본성을 인정하고 이를 복돋우는 교육을 하는 것이다. 학교와 언론, 문화

단체들이 이런 일을 맡아야 한다. 그러나 이는 장기적인 일이 될 수밖에 없다.

[5] 다른 하나는 정부가 올바로 서는 것이다. 법과 제도를 공정하게 만들어 엄정히 시행하는 것이다. 장기적인 교육 목표에 비해 정부 정책은 바로 눈앞의 일이고 이에 따라 이익 투쟁의 문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정부의 행동에서는 법 집행의 공정성과 엄정성 모두가 보이지 않는다. 의사들의 집단 파업과 롯데 호텔 노조 파업에 대응하는 정부의 모습은 일관성 정당성 엄정성 모두를 잃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의사들은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투쟁한다고 주장했지만, 그들의 요구 사항이 옳다고 하더라도 나는 전혀 믿지 않는다. 밥그릇 싸움의 고전적 모습일 뿐이다. 롯데 호텔 노조의 싸움은 밥그릇 싸움임을 전면에 내세웠다. 원래 노조투쟁이란 그런 것이다. 솔직하다. 그리고 힘이 없다. 사회에서 차지하는 의사와 노동자의 지위 차이가 파업에 대한 정부 대응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나타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은 척이라도 하는 것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길인데, 이런 점에서 정부는 계급적일 뿐 아니라 바보다.

이익투쟁 공정한 해결은

[6] 어느 나라에서건 언제이건 정부는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 그 나름대로의 이익을 가지고 사회 계급들의 끊임없는 압력 속에 있다. 압력을 더 크게 행사할 수 있는 집단에 정책 영향을 더 크게 받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좋은 정부와 나쁜 정부의 차이는 이러한 집단 이기주의의 압력 속에서 얼마나 중심을 잡고 공익을 위해 공정하고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느냐에 있다. 큰 정치와 작은 정치의 차이도 그런 것이다. 작은 정치는 집단들의 밥그릇 싸움을 조정하는데 그치지만 큰 정치는 이를 공익의 실현으로 승화시키는 것이다. 무엇이 공익이고 이를 어떤 방식으로 이를 것이냐를 알고 실행하는 것이 진정한 정치의 목표다. (중앙일보 시론, 2001. 7. 11.)

앞에서 잠깐 예를 든 위 글은 의료계 파업과 금융 노조 파업, 그리고 롯데호텔 노조 파업 등의 일련의 사건이 일어난 이후 쓰여진 글로서, '밥그릇 싸움과 정치'라는 제목으로 2001년 7월 11일자 중앙일보 시론에 실린 글이다. 일단 이 글의 담론적 실천 양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우리 나라의 주요 일간지에 실린 글이기 때문에 그 담론적 실천 양상은 일 개인의 단순한 저작물과는 차별화된다. 이 글은 전 국민을 상대로 유포(distribution)되는 글로서 중앙일보를 구독한다고 판단되는 우리 사회의 주요 독자들에게 의해 소비(consumption)된다. 때문에 이 글은 주부나 할머니 등의 특정 독자만을 상대로 작성된 글과는 일반성과 보편성을 담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이 글은 어떤 독자에 의해서 그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구어로 재구조화 되어 발화될 수도 있으며 누군가가 이 글을 인용하면서 또 다른 텍스트를 생산할 수도 있다. 즉 이 텍스트가 다른 텍스트들과 상호텍스트적 관계를 맺거나 그 과정에서 변용(transformation)될 가능성은 비교적 크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이 글은 김종찬(2001:93~102)에서 비판의 대상으로 인용되고 있다.

그런데 의료계 파업과 금융노조 파업에 직면해서는 대부분의 시사 칼럼이 정부를 절대적인 존재로 금조하는 경향이 노골화되었다. 이와 함께 수시로 등장하는 용어가 바로 '밥그릇 싸움'이라는 말이다.

금융노련이 파업에 돌입한 7월 11일자 <중앙일보>에 실린 김○○ 교수(○○대 정치학)의 '시론' 칼럼은 이런 내면을 살펴보기 좋은 사례다.

-후략 (김종찬, 2001:93)

말하자면 위의 글은 담론적 실천 과정에서 김종찬(2001)과 같은 비평 담론을 생산해 냈다. 이 과정에서 '밥그릇 싸움'이라는 용어가 함축하는 의미는 서로 달라졌다. 위의 글은 이 용어를 파업 사태라는 현실을 담론으로 재구성하기 위해 사용했지만 김종찬(2001)에서 '밥그릇 싸움'은 우리 사회에서 아무런 비평 없이 마구 사용되는 어휘 사용 양상에 대한 비판 사례로 제시되었다. 같은 단어이지만 각 담론이 재구성하고자 하는 현실의 모습은 서로 다르다. 이처럼 텍스트의 상호텍스트성과 변용 과정에서는 이데올로기적 변용이 함께 수반될 수 있다. 때문에 글을 읽는 독자들은 담론의 이데올로기적 실천 양상을 해당 담론의 틀 내에서 이해할 뿐만 아니라 타 담론과의 관계 속에서도 재구성해 보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과정을 통해 언어적 이데올로기들의 관계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이 글의 필자가 대학의 교수임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분명 한 개인의 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학 교수라는 글쓴이의 무게만큼 중앙일보라는 신문과 글 자체에 무게를 둔다. 만일 이 글이 평범한 주부에 의해 쓰여진 것이라면 우리는 이 글의 내용을 덜 신뢰할 수도 있다. 또 그럴 경우 중앙일보는 권위나 위엄보다는 평범한 소시민의 생각을 단지 알려 주는 기능을 하고자 한 것일 수도 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계층

이데올로기에 근거하고 있다. 우리는 글쓴이가 주는 담론의 힘(force)을 확인한 셈이다.

텍스트 차원을 살펴보면, 앞에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우리는 위 글의 글쓴이가 일련의 파업 사건을 '밥그릇 싸움'으로 어휘화(lexicalization)하고²⁵⁾ 이를 다시 '투쟁'으로 재어휘화(relexicalization)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밥그릇 싸움'은 일종의 은유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일련의 파업 사건들은 싸움과 투쟁으로서 재구성되며 그러한 부류로 범주화(classification)된다.

글쓴이는 명백한 상호텍스트성의 표지인 '-라고 말한다/주장한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그와 같은 싸움 당사자들의 견해를 '이해 당사자들은 이것이 이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처럼 드러내고 있다. 이것은 글쓴이가 '싸움'으로 범주화하고 있는 파업 사건을 '국가와 발전을 위한 것, 즉 일련의 사회 운동'으로 보는 견해도 존재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말하자면 파업을 싸움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항하는 담론이나 이데올로기가 존재함을 보여 준다. 그러나 글쓴이는 그들의 견해가 집단 이기주의에 속하는 것으로 못박고 그들의 견해가 '이익집단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투쟁하면 그만이고 개인 역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면 그만이다'에 치우쳐 있음을 언급한다. 이것 역시 '-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표현함으로써 이와 같은 담론이 존재하며 그러한 담론이 위의 파업 주도자들과 상호텍스트적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러한 담론에 대해서 '개인이나 집단은 이익만을 추구하되 공멸을 막기 위해 타협하여 정부를 만들고 정부는 이익 투쟁을 공정하게 조정하면 된다고 하는 생각, 이러한 속류 자유주의 사상은 인간 세계의 피해를 불러오는 매우 조악한 사상이다'라고 부언하면서 그들의 이데올로기를 속류 자유주의 사상으로 재어휘화하여 자신의 담론의 타당성을 입증하고자 하고 있다.

25) 중앙일보 시론에서 '이른바 밥그릇 싸움'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밥그릇 싸움'이 누군가의 글에서 인용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나 위의 경우 '이른바'는 해당 사태에 대한 비꼼과 못마땅함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사전의 의미 그대로 '이른바'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의 의미로 해석되며 그것은 특정한 어떤 텍스트에서 인용된 것이라기보다는 여기저기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말 정도의 의미로 파악할 수 있다. 물론 넓은 의미에서 보면 상호텍스트성의 흔적이다.

문제는 글쓴이가 직·간접적으로 타인의 견해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위의 견해들이 누구의 것인지 분명하지 않아 위 표현들이 모호성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국가와 사회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이해 당사자들이 주장했다는 위의 진술에서 정말 각 이해 당사자들이 정확하게 위와 같이 언급한 것인지 그들이 한 말을 간추리면 위와 같이 된다는 것인지 등은 분명하지 않다. 다만 이 진술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필자가 파업이라는 현실을 ‘밥그릇 싸움’과 ‘국가와 민족을 위한 것’이라는 두 가지 이데올로기로 재구조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텍스트의 현실 구성에는 또 한 가지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가 숨겨 있다. 글쓴이는 ‘국가와 사회 발전을 위한 것’이라는 이해당사자들의 주장을 부정하면서 이들의 행위를 바로 ‘싸움’으로 몰고 갔는데, 여기에는 어떤 사태가 발생하면 쉽게 해당 사건을 국가와 사회 발전을 위한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는 이분법적 잣대로 재단하려는 우리 사회의 공익 우선 주의와 이분법적 사고 방식이 깔려 있다. 왜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공익 우선 주의’라는 잣대가 우선시 되는지 그리고 왜 그것 아니면 ‘싸움’이라는 극단적 결론을 내리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비판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글쓴이는 위의 분석에서 드러난 것처럼 해당 사건을 싸움 아니면 집단이기주의로 규정한 후(1~2단락) 그 원인을 인간 본성에서 찾고 있다(3단락). 그리고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교육과(4단락) 정부의 정치(5단락)를 들고 있다. 그리고 6단락에서는 정부가 공익을 위해 큰 정치를 수행해야 함을 지적하고 글을 끝맺고 있다. 이와 같은 텍스트구조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는 글쓴이가 파업 사태를 ‘문제’로 규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글을 작성했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이 글의 텍스트구조는 문제 해결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것은 이 텍스트가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실천(social practice)으로서 작성된 것임을 보여 준다.

그런데 이 글은 문제의 해결책인 2가지 중 한 가지인 ‘교육’에 대해서는 애써 회피하면서 정부의 큰 정치 실현만을 강조한 뒤 글을 끝맺고 있다. 응집성(cohesion)이 결여된 셈이다. 글쓴이는 ‘장기적인 교육 목표에 비해 정부 정책은 바로 눈앞의 일’이라고 진술하면서 이와 같은 텍스트구조를

선택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단기적 계획 수립과 효과의 신속성을 추구하는 우리 사회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에 대한 비판이 마치 의식있는 자의 자세인 것처럼 간주하는, '깊이 없는 정부 비판 이데올로기'도 확인할 수 있다.

위 글은 이와 같은 지배 이데올로기를 유포시키는 주요 기제로 작용할 수도 있다. 공익 우선 주의와 공익의 집행자로서의 정부에 대한 이데올로기는 하나의 권력(power)으로서 독자들을 호명할 수 있으며 호명된 주체들은 기꺼이 정부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때문에 우리는 이 텍스트가 갖고 있는 이데올로기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러한 이데올로기에 대해 역동일시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다.

위 글의 이데올로기는 사회적 실천 과정에서 다른 담론이나 이데올로기와 접합, 탈접합, 재접합하는 과정을 통해 현실을 새롭게 (재)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앞서 인용한 김종찬(2001:94~99)의 다음과 같은 담론은 위 이데올로기와 갈등 관계에 있다.

이 글의 전제는 정부 이외의 이익단체는 모두 밥그릇 싸움의 당사자라는 규정이라고 생각된다. 이때 "정부는 왜 별도로 밥그릇이 필요한 존재로 해석되지 않는가?"라는 의문은 당연히 제기된다. 이를테면 "정부의 밥그릇은 무엇이고, 국민의 밥그릇은 정부의 밥그릇과 충돌하지 않는가?"라는 의문이다. -중략-

다시 말해 정부가 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조절을 위한 공개 행정을 펼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후략-

위 인용 글의 첫 단락은 분석 대상인 중앙일보 시론이 전제하고 있는 이데올로기를 문제 삼음으로써, '정부를 공익의 대변자로 간주하는 이데올로기는 문제가 있다'는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생산하고 있다. 그리고 합리적 조절을 위한 공개 행정을 강조함으로써 민주화와 더불어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로 등장한 '대화와 협상 이데올로기'로 현실을 재구성하고자 하고 있다.

위 시론은 약 일 주일 뒤에 나온 한겨레 신문의 '야! 한국사회'라는 2001년 7월 18일자 시론과도 상호텍스트적 관계에 있다.

집단 이기주의와 공공이익

(정○○, ○○○○○○연구소 연구위원)

집단이기주의는 당연하다. 집단이기주의를 비판하는 것조차 집단이기주의다. 예를 들어 '가'라는 동네에 쓰레기소각장이 들어선다면 동네 사람들은 누구나 반대할 것이다. 냄새 나고 집값도 떨어지는 일을 찬성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왜 거기에 세워야 하는지에 대한 아무런 상의도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면 더욱 그렇다. 반면, 나머지 동네 사람들은 '가' 동네에 쓰레기소각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익을 본다. 만일 그들이 '가' 동네 사람들의 데모를 비난한다면 그 역시 더 큰 집단의 이기주의일 뿐이다.

의사 폐업, 노동자파업과 달라 -중략-

이해 조정 능력 부족

양자 모두 결국 국민이 돈을 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공공성을 회복하는 과정, 곧 개혁과정에서 동네 의원과 금융기관 노동자에게 피해가 집중된다면 공공 자금으로 그들의 손해를 보상해 줄 수밖에 없다. 만일 제도개혁만 제대로 될 수 있다면 국민은 기꺼이 없는 돈이라도 쪼개서 세금을 낼 것이다. 두 대란의 경우, 문제를 끝까지 피해치지 않고 적당히 미봉했으며, 그 때문에 불만의 목소리가 계속될 것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집단이기주의는 그것이 공공이익 차원에서 제대로 조정될 수만 있다면 우리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문제를 정확히 짚어내서 신속하게 조정할 때 우리가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은 줄어들 것이다.

(한겨레 신문, 야! 한국사회, 2001. 7. 18)

위의 두 시론은 모두 공익우선주의와 정부가 공익의 통치자라는 공통된 이데올로기로 현실을 재구성하고자 하고 있다. 그런데 중앙일보 시론이 파업 사태를 '밥그릇 싸움과 집단 이기주의'로 명명하고 이것을 문제 상황으로 바라본 것과 달리 위 글은 '집단 이기주의는 정당하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중앙일보 시론이 정부가 공익을 '집행'해야 함을 논하고 있는데 비해 한겨레의 시론은 정부가 이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중앙일보 시론이 갖고 있던 이데올로기가 담론구성체들의 헤게모니적 투쟁 과정에서 다른 이데올로기와 결합, 재접합, 탈접합 되면서 이와 같은 이데올로기적 변용을 거쳤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중앙일보 시론이 보여준 이데올로기가 다른 담론이나 이데올로기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비평의 대상이 되기도 하

고 수정되어 수용되기도 하면서 우리 사회의 구조 내에서 자신의 위치를 재구조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고정된 실체로서, 고정된 의미를 갖는 텍스트로서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재구조화되는 동적 실체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사회 문화적 흐름에 따라 또 다시 다른 방식으로 거부되거나 수용되거나 수정되면서 우리 사회에서 제 위치를 재구조화시켜 나갈 수 있다. 우리는 각 담론 사건들이 서로간에 그리고 우리 사회의 지배 구조나 이데올로기들과 헤게모니적 투쟁을 일으키는 과정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회적 실천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5. 결론

읽기의 사회성 및 의미의 구성에 대한 학계의 지속적인 논의에도 불구하고 이것과 교육 현장 사이의 간극은 아직도 크다. 교과서는 여전히 하나의 제재 자체에 함몰되어 텍스트의 구조 및 주제를 파악하는 데에만 주로 초점을 두고 있으며 교수 학습 방법 역시 이에 쉽게 도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매체의 유통과 생산 및 타텍스트와의 소통에 대해서는 아직도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과정 또한 이에 대해 피상적으로 논의될 뿐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글은 사회적 실천 행위로서의 읽기란 무엇이며 그렇게 읽는다는 것은 어떻게 읽는 것을 의미하는지를 찾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읽기의 역동성을 담보하면서 언어 이론과 문화 이론이 통합된 읽기 방법의 설계가 필요함을 논하였다. 그리고 Fairclough(1992)에 기대어 그 한 가지 방법의 시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회적 실천 행위로서의 읽기란 무엇이며 그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은 여전히 명쾌하지 않다. 이 논문은 단지 그러한 논의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을 뿐이다. 앞으로 이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계속 이어질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매체 및 장르의 특성이다. 읽기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사회적 성격에 대한 논의는 대상 텍스트의 매체 및 장르적 특성에 대한 논의에서 더욱 풍부해 질 수 있다. 예컨대 과학에 관한 논문을 읽는 행위와 신문의 논설

을 읽는 행위가 갖는 차이점은 '학문공동체에서 소통되는 논문이라는 점과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하는 신문이라는 점, 과학에 관한 설명문이라는 점과 시사성이 짙은 논설문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좀 더 구체화될 수 있다.

이 논문이 제기하고 있는 사회적 실천으로서의 읽기 행위의 구체적인 양상을 좀 더 깊이 있게 다루기 위해서는 언어 이론이나 문화 이론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 분석하여 이 이론들을 읽기 이론에 수용할 수 있는 좀 더 정치한 논의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문화 이론이 대부분 언어와 권력의 문제에 비중을 두고 발전해 왔음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 이론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과 그 이론이 국어교육적으로는 어떻게 수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 역시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Beaugrande, R.(1997), *New Foundations for a Science of Text and Discourse*, Norwood, N. J.: Ablex Publishing Corporation.
- Fairclough, N.(1992), *Discourse and Social Change*, Polity Press.
- Halliday(1989), *Introduction to Functional Grammar*, London: Edward Arnold.
- Kutz, E.(1997), *Language and Literacy*, Boynton/Cool Publishers.
- 강내희(1999), 『문화론의 문제 설정』, 문화과학사.
- 강인애(1998), 『왜 구성주의인가』, 민음사.
- 김경용(2001), 『기호학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 김동환(1999), 『비평적 에세이 쓰기』, 문학과 교육, 한국교육미디어.
- 김상욱(1995), "소설 담론의 이데올로기 분석 방법 연구, 서울대박사논문.
- 김종찬(2001), 『신문 칼럼 속지 않고 읽는 법』, 새로운 사람들.
- 김창원(1995), 『시교육과 텍스트 해석』, 서울대 출판부.
- 김혜정(2002), "텍스트 이해의 과정과 전략에 관한 연구", 서울대박사논문
- 노명완·이차숙(1996), 『문식성의 개념, 발달 그리고 지도』, 한국교원대학교교육공동연구소.

- 다이안 맥도넬 지음, 임상훈 옮김(1992), 『담론이란 무엇인가』, 한울.
- 박명진 편(1994), 『비판커뮤니케이션과 문화이론』, 나남출판.
- 박수자(2001), 『읽기 지도의 이해』, 서울대 출판부.
- 박영목(1996), 『국어이해론』, 법인문화사.
- 박인기(1996), '독서와 매체 환경', 독서 연구 창간호, 한국독서학회.
- 박주식(1998), '알튀세의 사유체계에 드러난 읽기의 문제', 『인문과학연구』, 카톨릭대 인문과학연구소.
- 반다이키 지음, 정시호 옮김(1995), 『텍스트학』, 민음사.
- 보그란데와 드레슬러 지음, 김태옥·이현호 옮김(1995), 『텍스트 언어학 입문』, 한신문화사.
- 브링커 지음, 이성만 옮김(1994), 『텍스트언어학의 이해』, 한국문화사.
- 올리비에 르블 지음, 홍재성, 권오룡 옮김(1994), 『언어와 이데올로기』, 역사비평사.
- 우한용(1997), 『문학교육과 문화론』, 서울대 출판부.
- 윤여탁(1990), '시 문학의 이데올로기와 교육', 『국어교육 71·72호』, 한국 국어교육연구회.
- 이삼형·김중신·김창원·이성영·정재찬·서혁·심영택·박수자(2000), 『국어교육학』, 소명출판.
- 이은희(2000), 『텍스트언어학과 국어교육』, 서울대 출판부.
- 이재승·천경록(1997), 『읽기 교육의 이해』, 우리 교육.
- 정재찬(1996), "현대시 교육의 지배적 담론에 관한 연구", 서울대박사논문.
- 존 피스크 지음, 강태완, 김선남 옮김(2001), 『커뮤니케이션이란 무엇인가』, 커뮤니케이션북스.
- 최인자(2001), 『국어교육의 문화론적 지평』, 소명출판.
- 한상진·오생근 외(1990), 『미셀 푸코론』, 한울.

〈초록〉

사회적 실천 행위로서의 읽기 방법의 설계에 대한 시고

신명선

최근 읽기를 하나의 사회적 실천(social practice) 행위로 보려는 관점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사회적 실천 행위로서의 읽기'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이 논문은 그 구체적인 양상에 대한 고찰을 목표로 한다. 특히 사회적 실천 행위로서의 읽기가 갖는 성격을 고려할 때, 적절한 읽기 방법이 무엇인가를 탐색하는데 초점을 둔다. 그러나 미리 밝히지만, 이 논문은 그것을 종합적으로 고찰하려는 시도와는 거리가 멀다. 이 논문은 그러한 목적에 도달하려는 하나의 시도일 뿐이다.

사회적 실천 행위로서의 읽기 방법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첫째, 언어 이론과 문화 이론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주의할 점은 언어 이론과 문화 이론의 단순한 합이나 위계적 및 단계적인 통합은 지양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텍스트의 유동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읽기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텍스트가 고정된 실체가 아닌 동적 실체라면 이를 고려한 읽기 방법의 설계가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Fairclough(1992)에 기대어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 논하였다. Fairclough(1992)는 담론 분석을 위해 텍스트(text), 담론적 실천(discourse practice), 사회적 실천(social practice)의 세 가지 차원을 다룰 것을 제안한다. 텍스트에 대한 분석은 텍스트의 언어적 차원 즉 어휘, 문법, 응집성(cohesion), 텍스트 구조 등에 대한 분석을 의미하는 것이며 담론적 실천에 대한 분석은 텍스트의 생산(production), 유통(distribution), 소비(consumption)에 대한 분석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발화의 힘(the force of utterance), 결속 구조(coherence),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에 대한 분석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사회

적 실천에 대한 분석은 담론 사건(discursive event)이 사회 제도나 환경 등과 어떻게 교류하여 담론적 실천의 속성을 형성하고 담론적 구성 효과(constructive effect)를 갖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텍스트, 담론적 실천, 사회적 실천의 세 차원은 결코 단계화되어 있지 않다. 텍스트를 분석한 후 담론적 실천 차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사회적 실천 차원을 분석하는 방식은 지양한다. 사회적 실천 차원이 담론적 실천 차원을, 담론적 실천 차원이 다시 텍스트 차원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이들의 관계가 결코 단계적이지 않음을 의미한다. 예컨대 텍스트에 대한 분석은 담론적 실천 및 사회적 실천 차원에 대한 분석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 이들은 서로가 엄격하게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각 차원을 분리하여 텍스트를 읽으려는 시도는 무의미하다.

텍스트, 담론적 실천, 사회적 실천의 세 차원을 일직선으로 나열할 때, 텍스트 차원으로 갈수록 언어 이론의 영향이 크고 사회적 실천 차원으로 갈수록 문화 이론의 영향이 크다. 그러나 이들을 엄격하게 분리하려는 시도가 무의미한 것처럼 차원에 따라 각 이론의 적용 범위를 분리하려는 시도 또한 무의미하다.

사회적 실천 행위로서의 읽기란 무엇이며 그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은 여전히 명쾌하지 않다. 이 논문은 단지 그러한 논의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을 뿐이다. 앞으로 이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계속 이어질 필요가 있다.

【핵심어】 읽기, 읽기 방법, 사회적 실천 행위

〈Abstract〉

**A study on the reading methods
as social practice actions**

Sin, Myeong-seon

It's a trend to regard reading as social practice actions lately. But we haven't stated 'The reading of social practice actions' yet concretely. This paper set the goal at studying of the concrete phase. Considering the character of the reading of social practice actions specially, this paper focused on searching the appropriate reading methods. This paper doesn't try to studying the goal comprehensively, but the one of trial to reach the goal.

In order to design the method of reading, first, the theory of language and the theory of culture need to be integrated which doesn't pursue simple mix and integration in stages. Second, it is to be chosen to guarantee the flexibility of the text which is based on not the fixed entity but the flexible entity of the text.

This paper talked on the concrete method based on the Fairclough (1992) who suggest's analysis of discourse with treating of the three aspect such as text, discourse practice and social practice. The analysis of the text means the analysis of linguistic aspect such as vocabulary, grammar, cohesion, textual structure. The analysis of the discourse practice means the production, distribution, consumption of the text, and means the analysis of the force of utterance, coherence, intertextuality concretely. The analysis of the social practice means that how the discursive event exchange's with social institution and environment, and build's up the entity of

discourse practice with constructive effect.

Text, discourse practice and social practice don't exist in stages. It would be better stop analyzing social practice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discourse practice after analysis of the text. It doesn't means that the relations among text, discourse practice and social practice aren't in stages because the sphere of social practice include the sphere of discourse practice which include the sphere of text. For example, the analysis of the text can be made simultaneously with the analysis of the discourse practice and social practice. It is meaningless trial to read text with dividing strictly among the sphere of text, discourse practice and social practice.

When text, discourse practice and social practice are arranged in a straight line, the effect of the language theory is big with an inclination to the sphere of the text, the effect of the culture theory is big with an inclination to the sphere of the social practice. But as it is meaningless trial to divide strictly among the sphere of text, discourse practice and social practice, it is also meaningless trial to divide the applied scope of the sphere of the theory.

It haven't been clear to answer to a question such as what is the reading as a social practice, what is the concrete method. This paper just emphasizes again the necessity of discussion, it is necessary to be discussed profoundly what the reading as a social practice is and what the concrete method is.

[Key words] reading, reading method, social practice actions